

전통주택의 다락에 관한 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ft in Korean Traditional Houses

- Focused on the Chun-Buk Province -

최 인 호

Choi, In Ho

홍 승 재

Hong, Seung Jai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 to analyze and adjust structure and composition methodology for Loft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and than studying correlation about housing plan, according to middle-story structure like Loft form housing architecture.

The Loft is composited to level by condition of location, using a rise of stair by expanding of span by function.

We can divide to condition of location flatland and slant.

In the flatland case, Loft is so heating that the kitchen floor make a lowly and in the slant case, Loft is composited a part of wing using height attitude of floor, when the house build □ type and ▢ type.

Through this study, the Loft is various form of this structural forming then is affect the house facade.

The composite of wall is come with the existence of Loft and the wall divided by the lintel and wall line.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수용하기에 가장 적

*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합한 형태이며, 주거를 구성하는 각 실들은 생활상의 요구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공간이다.

그 중 다락은 주요 수장공간으로 주거계획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대부분에는 부엌 또는 방 상부 등에 다락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택에서는 적극적으로 주거공간에 다락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의 각 실들은 필요에 따라 부가될 수 있으나, 다락은 중층 또는 중이층의 구조이기 때문에 주거계획시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다락의 구성은 주거계획시 매우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지형 또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구성수법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주택의 다락에 대한 구조 및 구성방법론을 분석 정리하고, 주거건축에서 다락과 같은 중층구조가 구성됨에 따라 주택계획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전통주택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선학(先學)들의 선구적인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택의 배치 및 평면의 유형분류 등 평면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므로서 실제 주생활에 중심이 되는 내부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특히 중층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연구의 주거 평면도에 나타나지 않는 다락공간에 대해서는 주생활연구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나 주거계획과 연관지어 전혀 연구되지 못하였다. 또한 다락은 전통주택에서 내부공간을 수직분할하여 중층 또는 중이층을 갖는 효율적인 공간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부엌의 입식화와 인체변화에 따른 방 반자높이의 상승 등으로 변화되거나 제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방의 중·상류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락의 구성방법 및 다락구성에 따른 평면 및 입면과의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북지방 중·상류주택가운데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를 주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지정가옥중에서 적극적으로 다락을 구성하고 있고 전통주거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가옥도 연구

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가옥은 중요민속자료 2점, 지방민속자료 4점, 지방 문화재자료 2점, 비지정문화재 4점 등으로 총 12가구이며, 대상가옥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대상가옥에 대한 2차례의 답사 및 실측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차 답사는 다락의 위치 및 구조, 사용실태 등 일반적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문헌조사와 기존연구 내용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2차 답사에는 다락공간에 대한 실측조사와 함께 다락에서 보여지는 건축적 구성방법과 다락구성에 따른 주거의 입면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 가옥

번호	가옥명	문화재 지정번호	건립연대	소재지
1	김동수가옥	중요민속자료 제26호	1784년	정읍시 산외면 오곡리
2	용심재	중요민속자료제149호	1800년대 초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3	이영재가옥	민속자료 제12호	안재-1500년대 사향재-1864년	임실군 오수면 문덕리
4	권희문가옥	민속자료 제22호	안재-1853년 사향재-1773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5	세원병가옥	민속자료 제24호	1860년	군산시 성산면 교동리
6	경상윤가옥	민속자료 제119호	1938년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7	윤영재가옥	문화재자료 제117호	1511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8	노동환가옥	문화재자료 제118호	1650년	임실군 삼계면 후원리
9	경구재가옥		사향재-1859년	김제시 광화동 광화리
10	이영재가옥		1652년	임실군 오수면 둔기리
11	곽산택계 중가		1750년경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12	박환기가옥		1800년대 말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II. 다락의 발생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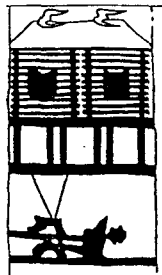
1. 다락의 발생과 발전

다락은 지표보다 높게 바닥을 설치하여 중층의 구조(樓)로 꾸며진 수장공간이다. 목가구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구조 내부의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는 다락은 거주공간 면적을 전혀 점유하지 않은 효율적인 공간이다.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다락은 중층이나 중이층에 꾸며진 수장공간, 특히 부엌천장과 지붕사이의 공간을 가리킨다¹⁾. 하지만, 주택에 따라 부엌외의 다른공간(방, 광, 외양간 등) 상부에도 다락을 구성하였다. 전북지방의 남원, 임실, 장수지역에서는 다락을 공루(空樓)라고도 불리운다.

다락의 발생과 기원은 언제쯤인지 알 수 없지만, 바닥면이 지표에서 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상식구조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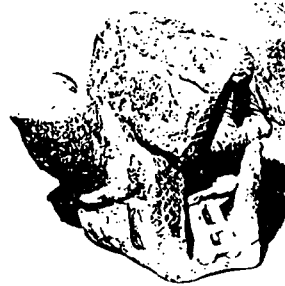
고상식구조는 고구려 고분 중 마선구 제1호분 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고신라 및 가야 등지에서 출토된 가형토기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1) 마선구 제1호분벽화

가형토기는 용기로서 의식이나 상징과 관련된 토기로 대부분 장례의식에서 묘주와 함께 매장된 명기이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주거 문화를 추측할 수 있다.

출토된 가형토기 대부분은 다락집 형식의 고상식 주거이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가형토기는 한쪽 옆에 굴뚝 모양의 큰 잔이 붙어 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박공면에 사다리를 설치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들 가형토기는 당시 주거기능에 따라 바닥면이 지상과 떨어진 고상식의 창고와 일반주거시설을 모방한 것이다.



(그림2) 가형토기 (호암미술관 소장)

「後魏書」에서는 “백제 사람들은 땅이 몹시 습하여서 땅에서 똑떨어진 공간에 집을 지었다 (百濟其民 上著地多下濕).”³⁾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인 동월이 쓴 「朝鮮賦」에도 “백제지방에서는 땅으로부터 똑 떨어진 높이에 마루를 설치한 집을 짓고, 높직하여 사다리를 타고 오른다(以基多高 故須梯昇)”⁴⁾하였다.

이와같이 이 지역에서는 땅이 몹시 습하여 지면에서 바닥을 높이 떨어뜨린 고상식주거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경등 고상식의 수장공간이 하나의 주거공간 내에서 중층구조의 다락으로 언제 발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의 고상식건물과 조선시대의 유구로 보아 조선시대 이전으로 소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은 여러 가지 용도와 기능을 가진 채와 방들의 조합에 의해 다양한 배치와 평면구성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상류주택은 다락을 구성하고 있다.

조선초기의 주택은 유구와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때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성리학적 사회윤리인 내외법에 따른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안채는 사랑채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채는 단순한 개인적 공간으로 사랑채의 성격이 아직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시기라 볼 수 있다.

손동만가옥은 □자형의 평면형태로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다. 다락은 안채에만 안방과 건넌방, 부엌상부에 구성하였으며, 안채와 사랑채 공간이 서로 뒷마루를 통해 연결되어 의식주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안채

에서 관리하며 사랑채에서는 필요시 안채에서 내다가 사용했다.

조선중기에는 내외법과 유교적 질서가 정착되면서 이전시대의 단순한 개인적 공간에서 점차 사랑채내에서 공간분화가 이루어져 기능과 용도에 맞는 개인별 점유공간의 크기와 구성요소를 갖추게 되어 □자형에서 사랑채가 돌출하거나 일부는 별채형의 성격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예천권씨중가는 □자형 몸채 전면으로 사랑채가 ㄷ자형으로 돌출되어 연결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일체형이기보다는 별채형의 성격이 더 짙은 가옥이다. □자형의 안채와 ㄷ자형의 사랑채가 한쪽 모서리에서 연결하는 안사랑부분에 사랑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락이 구성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지형이 사랑채에서 안채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져 지형적인 고저차에서 오는 안채와 사랑채의 지붕높이를 맞추려는 입면상 의도에서 기둥의 높이가 높게 되어 2개의 층을 꾸미고 상층은 다락으로 만들었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봉건적 신분제도가 해체되고 농업경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와 상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어 의식주 생활이 더욱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 생활 대부분을 담당하는 안채의 수장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채(棟)내 수장실의 기능이 세분화된다. 따라서 주거내 채의 평면은 점차 확대되어 겹집화 경향이 나타나며, 중층 또는 중이층 구조의 다락이 적극적으로 구성되었다.

김동수가옥은 ㄷ자형의 안채와 一자형의 사랑채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몸채의 정면 5칸 가운데 중앙 3칸은 대청이고, 그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을 각각 두었다. 각각의 방 전면으로 부엌이 시설되어 있어 ㄷ자형의 평면을 이루며 좌우대청을 이룬다. 이 체에는 대청을 제외한 부엌과 방상부에 다락을 넓게 구성하였으며, 사랑채도 사랑대청을 제외한

방과 합실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였다.

이와같이 다락은 조선시대 주택에서 볼 수 있듯이 주생활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과거의 남방의 원시적인 주거 형태 및 부경과 같은 고상식 구조가 주거에서 난방방식에 따른 바닥면의 차이 및 목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락으로 발전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다락의 종류

다락은 중층구조로서 다락이 위치하는 하층의 실명에 따라 부엌다락, 방다락, 쇠다락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본 논문에서는 다락의 구조가 다른 누다락을 포함하여 4가지로 분류하였다.

1) 부엌다락

방의 난방과 취사를 하기 위해 아궁이 시설을 갖춘 부엌이 기단면보다 보통 45~60cm정도 낮아지므로써 부엌상부에는 대개 다락을 구성하게 된다. 대부분 상류주택의 안방부엌 상부에는 다락이 있으며, 방에서 출입하도록 되어있다. 이곳에는 농이나 껌작 등 가구류와 상이나 촛대 등 제기, 길쌈도구 및 반지그릇 등을 수장한다.

2) 방다락

방은 대청과 다르게 개인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며, 반자가 구성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붕밑 종도리 부분과 반자사이의 여유공간이 자연스럽게 다락으로 구성되었다.

방에 먼저 반자의 높이를 정해 반자들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 마루를 놓거나 산자를 얹고 흙을 놓아 다락바닥을 이룬다.

경북지방의 일부 집들은 고미반자를 놓고 다락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락을 고미다락이라 구분하여 부른다. 고미다락은 방이나 창고 등의 천장을 고미받이와 고미가래(고미서까래)를 걸고 그 위에 산자를 얹고 흙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밑에는 치받이흙(양토)을 발라 고미반자를 꾸며, 반자들과 종도리 사이의 지붕속을 이르는 말이다.⁵⁾

방다락의 출입은 직접 출입할 수 없으며, 골방이나 부엌다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장

하는 물품으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귀한 물건(엽전, 폐물등)을 보관한다. 특히 나라의 전란이나 시국이 혼란할때 도적등의 내습에 대비한 내방 밀폐고로서도 사용하였다.

또한 사랑채의 경우에는 서적이나 인체를 위한 목판이나 선조들의 유품 등을 보관하였다.

3) 쇠다락

소를 기르는 외양간이 있는 주택에서 외양간상부에 다락을 설치해 농사짓는데 소요되는 농기구, 마구등을 수장하는 공간이다. 이 다락은 전후벽의 중방과 주간에 건너지른 작은 보 위에 널판을 깔거나 산자를 엮고 흙을 바르고 밑에서 치받이흙을 바르기도 한다. 또한 가느다란 통나무를 나란히 잇대어 전후 중방에 건너대고 흙질하여 평탄하게 하거나, 발 등을 깔기도 한다.

경북이북지방과 강원도산간지역의 곁집에서는 주거내에 외양간(마굿간)이 수용됨에 따라 그 상부를 판벽으로 막거나 봉당쪽으로 개방시켜 다락으로 활용하고 있다. 겨울철에 가축에게 먹일 여물(사료)이나 간단한 농기구, 공구 등을 보관하기로 하며, 때에 따라 통나무를 벽체 밖으로 내밀어 외부에서 선반의 기능으로 활용 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지방 주택에서는 외양간(마굿간)이 행랑채 또는 별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소실되어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유일하게도 권회문가옥의 외양간 상부에서 다락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바깥채 외양간 상부에 마루를 깔고 쇠죽에 넣을 겨를 주로 저장하므로써 이집에서는 이곳을 곁간이라 부른다.

4) 누다락

누다락은 누마루의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유사하다. 누마루는 구조적으로 고상식의 누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류주택의 사랑채 또는 별당채에 부속되어 있고, 평면상 전면으로 돌출되거나 끝단에 위치하여 3면이 외기에 면하고 있다. 사랑대청 또는 사랑방에 연결되어 구성된 누마루는 주인의 거처공간으로 주위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거나 독서를 하며, 빈객을 맞이하여 대화나 연회 등을 배플기도 한다.

그러나 공간의 위치나 형태적으로 누마루와 유사하나 인접한 실과의 연결 및 공간의 활용이 다락과 같은 누다락이 있다. 박완기가옥의 누다락은 하부구조를 대청의 기단보다 낮게 구성하였으며 작은 방에 붙을 때는 아궁이를 두었다. 상부의 누다락은 3면이 외부에 면하는 벽체를 구성하고 36cm높이의 머름을 설치하였으며, 벽면 중앙에는 외여단이 문을 두었다. 이가옥의 누다락은 누마루와 다르게 건넌방에서 연결되었으며 방바닥으로부터 다락바닥까지는 75cm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접근이 쉽지 않고 문턱에 발을 디디고 올라서야 한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주로 수장공간으로 활용하였으나 다락의 층고가 2,150mm정도나 되어 여름철에는 여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진 1) 누다락 (박완기가옥)

이와는 다르지만 경북지방의 가옥중에는 다락의 벽체가 안마당을 향해 개방되어 있고, 개방된 면에 30cm정도 높이의 난간을 시설한 누다락이 있다. 이곳은 부엌과 인접되어 있어 주로 음식물 등을 수장하였으며, 때에 따라 조리작업도 하기도 한 공간이다.

현존하는 상류주택중 양진당과 충효당, 의성김씨대종가 등 경제력이 컸던 주택에서 볼 수 있다. 양진당과 충효당은 정침의 기단을 1m이상 높임에 따라 생기는 고저차에 의해 부엌 3칸 상부에 다락이 구성되었는데, 그중 날개부분으로 돌출되는 한 칸 상부에 누다락

을 꾸미고 있다. 누다락의 출입은 안방전면의 뒷마루에 있는 층계를 이용하며, 다락의 개방된 면을 하층의 벽체보다 앞으로 돌출시켜 출입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표2〉 조사대상가옥의 다락분포 현황

다락종류 가옥명	안채			사랑채			행랑채
	부엌다락	방다락	누다락	기다	방다락	부엌다락(합실)	
김동수가옥	●	●			●	●	
몽심채	●			(나뭇간)	●	●	
이용재가옥	● (합실)	●					●
권희문가옥	●	● (고미다락)					
제원명가옥	●	●				●	
경상윤가옥		●			●	●	
윤영채가옥	●						
노동환가옥	●						
정구례가옥					●	●	
이영재가옥	●						
죽산박씨가	●						
박환기가옥	●		●			●	

Ⅲ. 다락의 구성특성

1. 다락의 위치와 규모

조사대상가옥에서 다락은 주생활공간인 안채와 사랑채에 주로 구성되었다. 행랑채에는 주로 쇠다락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농사 경영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행랑채가 소실되거나 변화되어 쇠다락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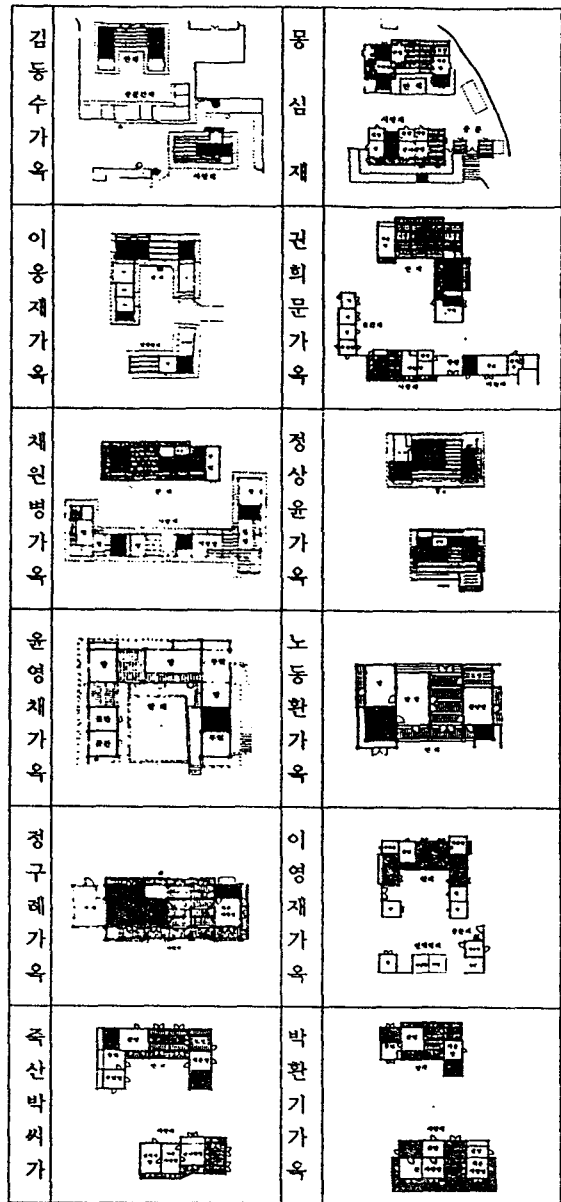
안채는 소실된 정구례가옥을 제외한 11가구 모두에, 사랑채는 조사대상중 6가구에 다락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부엌(합실포함)과 방 상부에 위치한다

부엌다락은 안채가 소실된 정구례가옥을 제외한 11가구중 10가구에 존재한다. 이용재가옥은 안방 전면으로 취사와 난방을 할 수 있는 부엌이 있지만 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지 않고, 좌측날개부의 합실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였다.

대부분 사랑채는 방다락과 합실상부다락(부엌다락)이 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가옥중 사랑채에 다락이 구성되는 6가구

중 4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나머지 2가구는 합실상부에만 다락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가옥의 다락 위치는 (그림3)과 같다.



(그림3) 다락의 위치

또한 각 채에 구성되는 다락의 규모를 보면〈표3〉과 같다.

안채에 구성되는 다락은 윤영채가옥처럼 부엌상부에만 소극적으로 작은 공간을 구성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거는 평면의 30~40%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 다락을 구성하고 있다. 정상윤가옥은 12칸중에 8칸이나 다락을 구성하여 안채 전체면적에 대해 66.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랑채의 다락은 안채와 거의 비슷한 숫치의 다락구성을 갖는다. 가장 적은 박완기가옥은 9%(0.75칸)이며, 가장 높은 정상윤가옥은 안채의 숫치와 마찬가지로 사랑채 전체면적에 66.6%(6/9칸)를 차지하고 있다.

다락이 구성되는 비율이 40%가 넘는 가옥으로는 김동수가옥의 안채와 사랑채, 채원병가옥의 안채, 정상윤가옥의 안채와 사랑채 등이 있다. 김동수가옥과 채원병가옥의 안채, 정상윤가옥의 사랑채는 주거 평면중 연등천정으로 구성되는 대청을 제외한 부엌과 방상부의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다락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면적 비율을 차지하는 정상윤가옥은 특이하게 가장 많이 구성되는 부엌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모든 방의 상부에 다락을 구성함으로써 가장 넓게 다락을 구성하였다. 이는 방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방다락만으로도 충분한 수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3〉 가옥의 다락규모

면적	안채다락면적 / 안채전체면적(%)	사랑채다락면적 / 사랑채전체면적(%)
가옥명	(%)	(%)
김동수가옥	6 / 14 (42.8)	3 / 7 (42.8)
몽심재	3 / 12 (25)	2 / 10 (20)
이용재가옥	4 / 12 (33.3)	(0)
권희문가옥	3 / 9 (33.3)	(0)
채원병가옥	5 / 11.5 (43.4)	3 / 17 (17.6)
정상윤가옥	8 / 12 (66.6)	6 / 9 (66.6)
윤영재가옥	1 / 14 (7.1)	-
노동환가옥	1.25 / 7 (17.8)	(0)
정구례가옥	-	3.5 / 10 (35)
이영재가옥	4 / 13 (30.7)	(0)
죽산박씨 중가	2 / 9 (22.2)	(0)
박완기가옥	2 / 7 (28.5)	0.75 / 8 (9)
평균	39.25 / 120 (32.7)	18.25 / 56 (32.7)

* 전체면적: 통로로 사용되는 뒷마루와 쪽마루를 제외한 거주공간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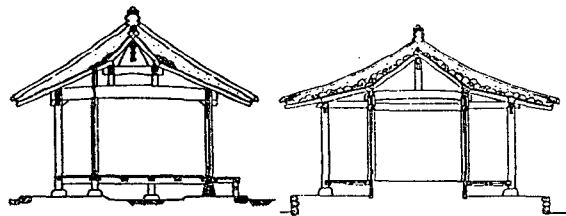
2. 다락의 구조

1) 가 구

다락은 지붕밑의 공간을 이용한 부분으로, 천정 모두가 지붕 경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정이다.

조사대상가옥에서 몸채의 가구는 대부분 5량구조이나, 이용재가옥, 몽심재, 윤영재가옥 등은 3량구조로 구성되었다. 몸채가 3량구조인 가옥은 대부분이 ㄷ자형 평면으로 주로 날개부에 다락이 구성되었다.

5량가구에서는 삼분변작법과 사분변작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도리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다. 삼분변작법은 대들보의 길이의 1/3위치에 중도리의 위치를 잡는 것으로 주택에서 다락의 벽체 형성이 중도리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중도리에서 전면으로 나와 주도리와 중도리사이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환가옥과 김동수가옥의 안채에서 볼 수 있다. 사분변작법은 대들보 길이의 1/4위치에 중도리의 위치를 잡는 방법으로 다락의 벽체가 중도리사이에 공간형성의 충분한 넓이가 되기 때문에 중도리 밑부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김동수가옥의 사랑채, 정상윤가옥의 안채와 사랑채, 정구례가옥의 사랑채, 채원병가옥 등 가옥에서 사분변작법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삼분변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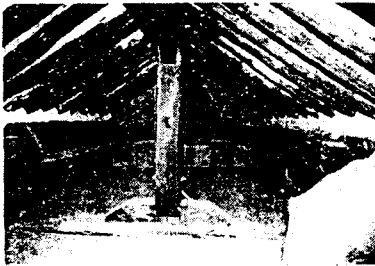
(사분변작법)

(그림4) 5량가구에서 벽체가 형성되는 경우

따라서 같은 5량가구일때는 삼분변작법보다는 사분변작법에 의한 지붕구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상부다락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분변작법을 갖는 가옥에서 방다락이 구성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방다락이 2칸의 방크기만 하게 구성되어지며, 칸과 칸사이에 보와 동자주 등 여러부재가 놓이는 실내공간을 보다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가 중앙부분이 윗쪽으로 휘어져 올라간 곡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동수가옥 사랑채의 방다락은 5량의 가구로서 간사이의 중보를 없애고 사각동자주를 대들보위에 놓아 종도리나 중도리로 직접 받게 하였다. (사진2) 이는 다락의 실내공간을 보다 유효하게 사용하려 했던 의도에서 가구를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사진2) 방다락가구(김동수가옥 사랑채)

다락의 높이는 상부 지붕구성에 따라 종도리쪽이 가장 높고 양옆에는 사람이 설 수 없을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일부가옥에서는 보다 높게 다락을 구성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수법을 찾아볼 수 있다.

몽심재의 안채는 전체평면이 卍字形이며 다락은 전면에 돌출된 날개부에 위치한다. 대부분 卍字形의 주택은 공간의 위계에 따라 날개부의 지붕높이가 정침보다 낮게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몽심재의 경우 경사진 대지에 위치하였지만 전면 날개부의 종도리 높이를 정침의 종도리 높이와 일치시켜 충분한 높이(1,800mm)의 다락공간을 구성하였다.

채원병가옥은 상부의 다락높이를 보다 높게 확보하기 위하여 안방의 천정높이가 1,880mm로 다른 가옥보다 낮게 잡고 있으

며6). 또한 방다락과 터져있는 부엌다락은 부엌바닥이 방바닥보다 80cm정도 낮게 구성됨에 따라 다락의 바닥도 방다락보다 50cm정도 낮게 잡으므로서 총고가 2,100mm가 된다. 완벽한 중층구조이며,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후 양퇴의 겹집형 평면인 정상윤가옥은 보간이 확대됨에 따라 총고가 자연히 상승되어 충분한 다락의 높이를 확보하였고, 이영재가옥처럼 기단의 높이를 높게 하여 부엌부분과 많은 높이차를 두므로서 부엌위에 충분한 높이의 다락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여러주택에서 다락 내부공간을 높게 하기 위한 계획수법을 살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다락높이는 이보다 낮은 1,300~1,450mm 정도로서 허리를 굽혀 생활할 수 있는 수치를 갖는다. 조사대상가옥의 다락 높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락 높이 (단위 : mm)

가 옥		다 락 높 이
김동수가옥	안 채	1630 (방상부) / 1510 (부엌상부)
	사랑채	1320 (방상부)
몽 심 재	안 채	1800 (부엌상부)
	사랑채	1440 (방상부)
이영재가옥 (안 채)		1440 (방상부) / 1400 (합실상부)
권희문가옥 (안 채)		개 조
채원병가옥	안 채	1600(방상부) / 2100(부엌상부)
	사랑채	1300, 1280 (부엌상부)
정상윤가옥	안 채	1730 (방상부)
	사랑채	1650 (방상부)
윤영재가옥 (안 채)		1280 (부엌상부)
노동환가옥 (안 채)		1300 (부엌상부)
정구배가옥 (사랑채)		1300 (방상부)
이영재가옥 (안 채)		1750 (부엌상부)
박삼박씨종가 (안 채)		2050 (합실상부)
박원기가옥 (안 채)		2150 (합실상부)

2) 벽체 및 창호

벽체의 구조는 판벽과 토벽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락의 벽체는 토벽으로 구성되며, 다락내부에는 강회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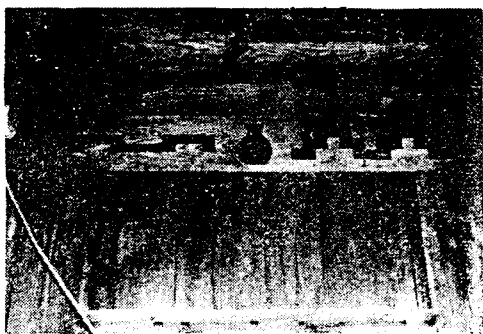
르거나 종이로 마감하였다. 판벽은 간사이에 인방이 상중하로 놓이며 그 사이에 띠장을 두고 널을 붙여 판벽을 구성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정구례가옥의 사랑채 합실상부다락에 서만 볼 수 있다.

다락의 창호는 통풍과 채광을 위해 벽체에 구성되며, 주택의 입면구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방다락의 경우에는 가장 입면성이 큰 건물 정면에는 대부분이 정교한 빗살창이고 그 다음으로 정자살창이 구성되는데, 빗살창을 시설한 가옥은 채원병가옥의 안채, 정상윤가옥의 안채와 사랑채, 정구례가옥의 사랑채 등이 있다. 또한 몽심재의 사랑채에서는 다락이 구성되는 칸 벽체 모두에 정자살창이 고정창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주로 측면은 정자살창이 배면에는 띠살창을 얹혀 들창방식으로 설치하였다.

부엌에 구성되는 창호는 대개 부엌의 전·후면에 정자살창과 띠살창이 크게 구분없이 구성되었다.

다락의 벽체가 외부에 면하는 면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닫이보다 들창이 많이 나타난다.

일부가옥에서는 창은 아니지만 환기를 하기 위해 벽체에 여러 가지 모양의 구멍을 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⁷⁾



(사진3) 합실상부다락의 환기구(정구례가옥)

3) 바닥

다락의 바닥 구조는 흙바닥과 마루바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흙은 하중이 무거워, 구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가옥은 장마루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다음으로 우물마루, 흙바닥 순이다. 장마루와 흙바닥은 방과 부엌상부에 구분없이 구성되지만 우물마루는 대부분 방상부에 구성되어지나 누다락이나 부엌다락에 구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표5> 다락의 구조

가 옥	구조	벽 체		창 호			바닥		
		판벽	흙벽	정자살창	띠살창	유리창	우물	장	흙
김동수가옥	안채		○	○			○		
	사랑채		○	○			○		
몽심재	안채		○		○			○	
	사랑채		○	○				○	○
이동재가옥 (안채)			○	○					○
편희문가옥 (안채)			○	○					○
채원병가옥	안채		○		○		○		○
	사랑채		○	○		○			○
정상윤가옥	안채		○		○	○		○	
	사랑채		○		○			○	
윤영재가옥 (안채)			○	○					○
노동환가옥 (안채)			○		○	○			○
정구례가옥 (사랑채)		○	○						○
이동재가옥 (안채)			○				○		○
황산역의룡가 (안채)			○			○		○	
김원기가옥 (안채)			○			○		○	

IV. 다락의 구성방법

1. 구성방법

다락은 증층형구조로서 입지적 조건에 의한 고저차와 기능에 따른 보간의 확대에 의한 층고의 상승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입지적 조건은 크게 평지와 경사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락의 구성방법에도 차이를 보인다.

1) 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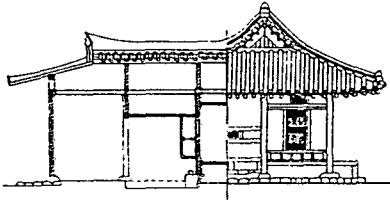
가옥의 입지가 평지 또는 一자형 평면인 경우에 다락은 주로 부엌과 방 상부에 만들어진다.

부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난방을 위해 부엌바닥이 바깥지표보다 낮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부엌바닥에서 지붕면까지는 높은 공간이 형성되어 대부분의 중·상류주택에서 부엌 천장에 다락을 구성하고 있다.

평지에 위치한 김동수가옥의 안채는 ㄷ자형으로 좌우대칭이다. 몸체의 대칭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각각 위치하

고 이어 꺾인 날개부에 부엌이 시설되어 있다. 부엌과 방 상부에 다락을 만들었으며, 두 개의 다락은 서로 인접되어 있지만 벽체로 구분되어 따로 출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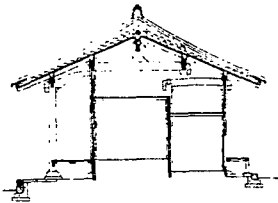
부엌다락은 부엌2칸중 아궁이시설이 있는 1칸 상부에만 다락을 구성하고 있다. 아궁이의 바닥은 지면보다 45cm 낮게 되어 있어 이러한 공간적 높이를 이용하여 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였다.



(그림5) 평지에서의 다락구성(김동수가옥)

채원병가옥과 같이 一자형 평면에서는 부엌이 안방옆에 위치하며, 바닥면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부엌상부에 다락을 구성하였고, 인접한 방상부에도 다락을 만들고 있다. 이들 두공간의 다락은 서로 트여 있으나 하층공간의 고저차로 인해 상부 다락에서도 50cm의 고저차를 갖는다.

(그림6)의 정상윤가옥의 안채는 방들이 상·하 2줄로 배치되는 겹집형 평면으로 보칸이 넓어짐에 따라 5량의 가구구조를 취하였으며, 높아진 지붕밑에 가구구조를 그대로 이용하여 다락을 구성하였다.



(그림6) 정상윤가옥의 안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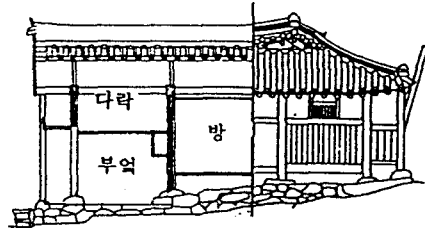
이와같이 평지에서는 주로 부엌과 타공간의 바닥차를 이용하여 상부에 다락을 구성하며, 또한 평면구조에 따라 상부 지붕구조가

높아져 그 하부공간을 다락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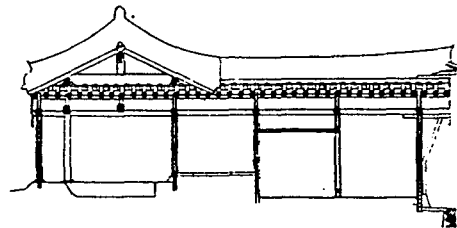
2) 경사지

기복이 있는 소구릉과 준평원의 산간분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건물의 대지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형에 ㄷ자형이나 ㄱ자형(튼ㄱ자형)의 건물을 세울 때 생기는 바닥면의 높이차이는 날개부분에 중층구조의 다락을 만들 수 있다.

조사대상가옥중 몽심재, 운영채가옥, 이웅재가옥처럼 경사가 완만한 지대에 위치한 전통주택은 대부분 지세에 순응하여 높은 지대에 정침이 위치하고 전면의 경사진 낮은 지대에 날개부가 돌출되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지붕을 구성하는 방법은 몸채보다 날개부의 지붕을 낮게 구성하거나 경사진 지형에 맞추어 계단형의 지붕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 주택에서는 날개부분의 지붕높이를 몸채와 같이 높게 구성하고 높아진 하부공간을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상층에 다락을 구성하고 있다.



a. 몽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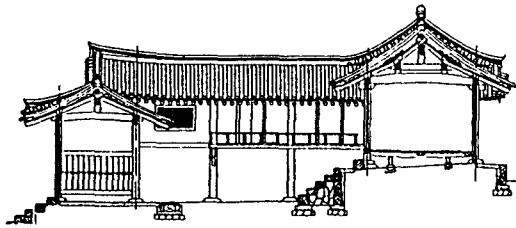


b. 운영채가옥

(그림7) 완만한 경사지에서의 다락구성

경사가 급한 대지에서는 지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날개부 전체를 중층화하여

그 상부를 다락으로 활용한다. 고성이씨종택(그림8)이나 의성김씨종택 등 경북지방의 상류주택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전북지방에서 그 사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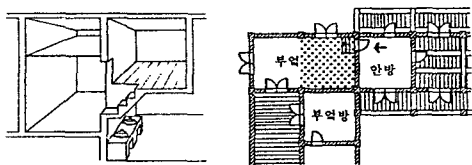
고성이씨종가
(그림8) 급한 경사지에서의 다락구성

2. 다락의 출입형태

1) 부엌다락

가) 방아랫목 벽체의 문을 통해 출입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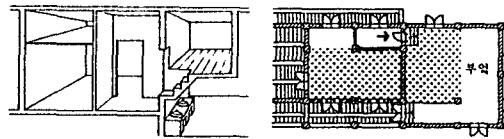
가장 일반적인 출입형태로서 방과 부엌이 인접하여 부엌다락을 방아랫목 벽면의 한쪽에 다락문을 만들어 출입하는 경우이다. 다락문은 방바닥으로부터 40~60cm 정도 위에 만들며 문을 열면 계단이 부엌쪽으로 비스듬히 걸어 2~3개의 디딤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계단에 오르면 다락의 바닥에 이르게 된다. 벽면의 두 개의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외여닫이문으로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며 다른 하나는 쌍여닫이 또는 미닫이문으로 벽장문이다. 김동수가옥의 안채, 몽심재의 안채 등에서 볼 수 있다.



a. 단면투시도 b. 평면사례 (몽심재)
(그림9) 방아랫목의 문을 통해 출입하는 방식

나) 골방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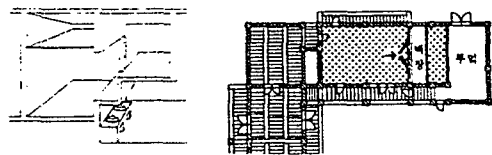
안방에서 골방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골방은 반칸정도의 크기로 방 한쪽 구석에 칸막이를 두어 구획하였다. 이런 경우는 다락문이 골방안에 감추어져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 단면투시도 b. 평면사례 (채원병가옥)
(그림10) 골방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방식

다) 벽장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방식

방아랫목 벽면에 네짝미서기문 또는 사분합여닫이문으로 되어 다락문과 벽장문이 동일문인 경우이다. 출입문을 열면 문지방과 같은 높이의 벽장이 있고 상단 70~80cm 정도 위로 다락 바닥이 설치되어 계단이 없이 벽장 바닥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문짝에는 서화(書畵)를 붙여 방안의 분위기를 돋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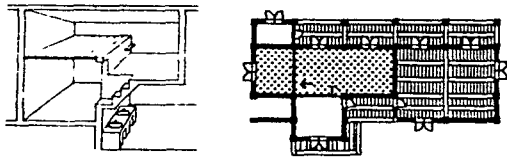


a. 단면투시도 b. 평면사례 (권희문가옥)
(그림11) 벽장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방식

2) 방다락

가) 부엌다락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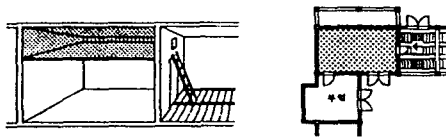
방상부에 다락을 구성할 때 방바닥과 상부 다락과는 높은 레벨차가 발생하므로 방과 천정과의 중간정도 높이에 놓여 있는 부엌다락을 통해 방다락에 출입하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一자형의 주거에서 볼 수 있는 다락의 출입 형태이며, 가옥의 예로는 채원병가옥의 안채, 정상윤가옥의 안채와 사랑채, 김동수가옥의 사랑채, 정구례가옥의 사랑채 등이 있다.



a. 단면투시도 b. 평면사례(김동수가옥사랑채)
(그림12)부엌다락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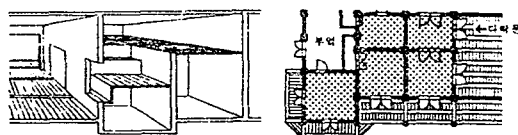
나) 대청에서 출입하는 방식

대청에서 방다락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다리를 대어 타고 올라가는 방법과 다락이 넓게 구성되어 단을 이루어 올라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로는 전자의 경우에는 이웅재가옥, 후자의 경우에는 정상윤가옥의 안채 등이 있다.



a. 단면투시도 b. 평면사례(이웅재가옥)
(그림13) 대청에서 출입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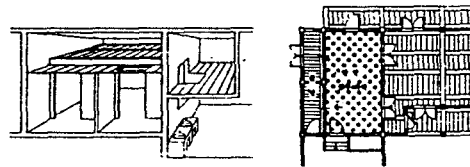
정상윤가옥은 방상부에만 4칸의 다락이 통칸으로 구성되어 다락내 단을 두어 출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부층 4칸의 방중 대청과 인접한 골방 한칸을 다른 방보다 낮게 구성하여 대청에서 쉽게 접근하게 되어 있다. 대청에서 다락문턱까지는 50cm이고 다시 50cm정도 오르면 레벨이 낮은 골방상부다락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안방쪽으로 꺾어 65cm와 68cm의 두 단을 오르면 나머지 3칸의 방다락에 오르게 된다.



a. 단면투시도 b. 평면사례(정상윤가옥)
(그림14) 다락내 단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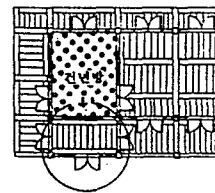
다) 골방을 통해 출입하는 방식

방에서 골방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옥중 김동수가옥, 채원병가옥 안채의 건넌방 등에서 볼 수 있는 출입형태이다. 김동수가옥은 안방과 건넌방 상부에 같은 다락구성을 하였다. 골방의 벽면에 선반같은 디딤판을 골방높이의 절반정도에 놓아 반자위의 마루장을 들고 출입하게 되어 있다. 마루장의 크기는 48×40cm이다.



a. 단면투시도 b. 평면사례(김동수가옥 안채)
(그림15) 골방을 통해 출입하는 방식

또한 채원병가옥 안채의 건넌방상부의 다락은 방바닥보다 60cm정도 높게 구성된 전퇴에 계단을 놓고 다락을 출입하게 된다. 이때 전퇴 하부는 건넌방에 붙을 지피는 아궁이가 시설된다. 이와같이 방다락은 부엌다락을 통해 출입하지만 구성에 따라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방을 통해 출입하게 된다. 이로인해 뒷마루가 골방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16) 퇴의 골방화(채원병가옥)

3. 다락과 주택의 입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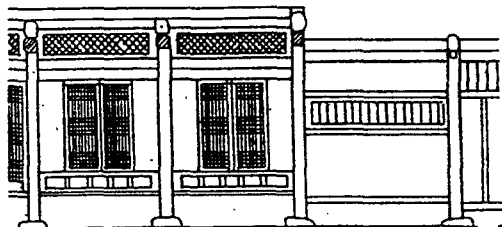
주택의 입면은 내부공간의 기능에 따라 구성되어진다. 전술한 바와같이 기능과 입지적 요인 그리고 층고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거내 일부분에 구성되는 중층구조의 다락은 다락이 구성되지 않을 때의 간략한 벽면처리

보다 다양한 면분할 등에 의한 입면구성을 하게 된다.

주택의 입면은 다락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방 상부에 다락을 만들지 않을 때 전면의 벽은 마루로부터 하인방, 띠살문, 상인방, 벽체, 창방, 벽체순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상부에 다락을 만들 때는 충분한 다락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층고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다락 바닥면에 맞추어 상인방 위에 새로운 인방을 끼우고, 그 인방과 도리사이에는 다락의 채광을 위한 창호가 시설된다.

채원병가옥은 방상부에 다락을 구성하면서 문의 상인방위에 다락 바닥면과 같은 높이로 인방을 덧대고 그 위에는 정교한 빗살창을 가로로 길게 시설하였다. 다락의 창호는 주로 빗살창과 띠살창을 넓혀 들창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17) 방과 부엌상부다락 벽체(채원병가옥)

또한 함실 상부의 다락공간은 실(Solid)과 허(Void)한 공간의 대비를 통하여 다양한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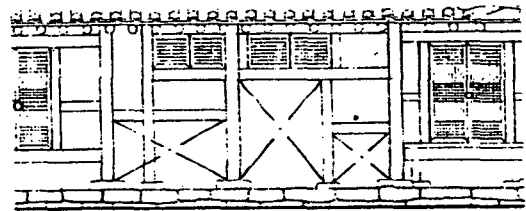
(그림 18)은 사랑채의 함실상부에 다락이 구성될 때의 입면이다.

(그림 18-a)는 채원병가옥 사랑채이며 함실 양쪽에 방이 위치하고 상부에는 다락을 구성하였다. 함실상부다락은 양쪽방에서 양분하여 사용하며 출입형태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함실 좌측방에서는 벽장을 통해 다락을 출입하며, 함실 우측방은 벽장과 한쪽에 다락문을 따로 두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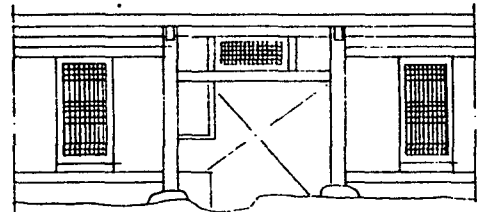
이와같이 출입형태와 크기가 다르게 구성

되어지는 다락은 입면처리에서도 다르게 구성되어진다. 따라서 벽면은 내부공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비대칭이 이루어지지만 벽면 처리에 있어 균형을 갖는 입면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림 18-b)는 몽심재가옥의 사랑채이며, 함실상부다락은 큰사랑방에서 골방에 다락문을 만들어 사용하는 공간이다. 다락은 단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으며, 다락에 오르지 않고 단 한쪽구석에 벽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의 위는 다락바닥의 마루로 되어져 있다. 벽면은 내부기능과 구조에 따라 구성되어졌으며, 다락에서 가장 단순한 입면구성이라 할 수 있다.



a. 채원병가옥의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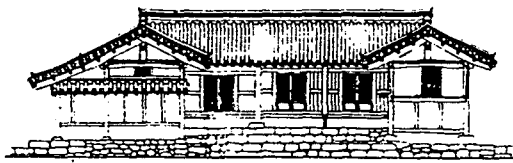


b. 몽심재의 사랑채

(그림 18) 함실상부에 다락이 형성되는 경우

또한, 몽심재 안채는 경사진 대지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붕구성에 있어서 전면 날개부의 종도리 높이를 정침의 종도리 높이와 일치하여 용마루선의 높이차를 없애, 충분한 높이의 다락공간을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ㄷ자형 주택은 날개부의 3량의 종도리가 5량의 정침 종도리와 결구되어 날개부의 지붕높이가 정침보다 낮게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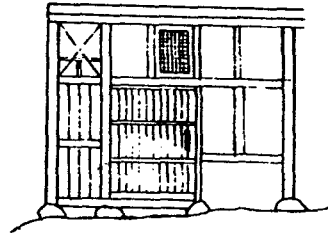
좌측날개부에 구성되는 다락은 나뭇간(광) 상부에 위치하였으며, 하층 나뭇간의 바닥 레벨은 기단면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우측날개부에 구성되는 다락은 하층에 부엌이 위치하며 부엌바닥이 기단면보다 40cm정도 낮아지므로서 상부의 다락 높이가 좌측의 날개부의 다락높이보다 높다. 좌측날개의 끝부분을 맞배지붕의 도리뿔목길이만큼이나 전면으로 돌출시켜 상부는 폭 70cm정도의 난간을 만들었으며 다락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면으로 돌출된 부분은 가적지붕을 덧대어 지붕구성을 하였다. 반면에 우측날개부의 입면처리는 내부공간에 맞추어, 상층의 다락부분과 하층의 부엌부분의 벽면이 상하 비슷한 비율을 하였으며, 벽체의 중앙에 위치한 다락창호를 중심으로 벽면을 대칭적 구성하였다.



(그림19) 몽심재의 안채정면도

경사지에 세워진 ㄱ자형 또는 ㄴ자형 전통 주택은 대부분 높은 지대에 정침이 위치하고 전면의 경사진 낮은 지대에 날개부가 돌출되어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날개부분의 기둥을 높게 세워 자연스럽게 두 개의 층을 형성하면서 상층부에 다락을 구성하였다. 높게 세워진 기둥에 따라 벽체의 높이가 높아지고 이로인해 벽면의 구성은 다락을 구성하지 않을 때와 다른 입면처리가 요구되었다.

남원 몽심재의 날개부 벽체는 다락의 창호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한쪽은 난간을 만들어 입면상 Void처리 하였고 다른 한쪽은 Solid한 흙벽으로 구성하여 대칭적 구성속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림20) 다락이 구성되는 벽체(몽심재)

이러듯 다락부분의 벽체구성은 내부공간에 맞추어 구성되므로서 외부벽체에 변화를 주었으며, 주택의 입면에 다양함을 부여하고 있다.

V. 결론

다락은 지표면보다 높게 바닥을 설치하여 중층의 구조로 꾸며진 수장공간으로, 목가구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거주공간의 면적을 전혀 점유하지 않는 효율적인 공간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락은 대부분 가옥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부엌과 방 상부에 구성되어 있다.

주거평면에서 다락의 평균구성면적비는 안채가 32.5%, 사랑채가 32.1%로 나타난다. 40%가 넘는 경우도 여러 채에서 볼 수 있어 다락을 적극적으로 주거공간에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락은 주거의 입지에 따라 다양한 구성방법을 보여주며 출입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엌다락은 방아랫목 벽체의 문을 통해 출입하는 방식이 보통이며, 방한쪽 구석에 반칸 정도의 크기로 간막이하여 골방을 만들고 이 골방안에 다락문을 만들어 외부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구성기도 한다.

방다락은 부엌다락을 통해 출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뒷마루를 골방화하여 골방에 계단을 놓아 오르거나 선반같은 받침대를 밟고 반자들의 마루장을 들고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방상부에 다락이 넓게 구성되어 다락내 단을 통해 출입하는 방식 등

다양한 출입형태를 구성하였다.

셋째, 5량가구로 구성되는 가옥에서 사분변작법이 삼분변작법에 의한 지붕구성보다 효과적으로 상부다락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일부 주택들은 보다 높게 다락의 층고를 구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단면계획 등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방 벽면의 구성은 다락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상부에 다락이 구성될 때는 충분한 다락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층고가 높아지며, 벽면의 인방과 도리사이 에 다락의 채광을 위한 창호가 시설되므로 다락이 구성되지 않을 때와 차이가 있다. 또한, 다락의 입면은 내부공간에 맞추어 구성되므로 외부 벽체 구성에 변화와 다양함을 부여한다.

이상의 연구는 전북지방의 중·상류주택을 중심으로한 연구이며, 추후 타지역 주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다락의 구성방법과 입면성 등이 비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1991, p.26
- 2) 『三國志』(魏志東夷傳 高句麗條)의 「큰 창고가 없어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두었는데 부경이라 불렀다」(...無大倉庫家家有小倉 名之爲桴京...)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 부경에 대해서 선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김정기 (韓國木造建築, 일지사, 1980) 부경에 대해서는 ... 고상의 작은 목조창고로 보면 될 것이나, 혹시 이것이 귀틀집 모양의 창고였을지도 모르겠다.
 - 신영훈(韓屋과 그 歷史, 동이문화사, 1975)
- 『고구려에서는 마을의 큰 창고 대신에 집집마다에 소창이 있었다. 이것을 부경(桴京)이라고 불렀다. ... 부경이란 ... 고구려시대의 무덤, 거기에 그려진 벽화중에 아무래도 창

고로 볼 수 밖에 없겠다고 해석되는 그림이 조사되었다. 마선구라는 곳에서 발굴된 제1호분의 벽화에 그린 그림에서 그것이 밝혀졌다.

이 그림의 창고는 높직한 기둥을 받쳐 다락을 꾸미고 귀틀집 처럼 두 간을 만들어 한 지붕을 씌운다.

- 주남철 (韓國住宅建築, 일지사, 1980) 부경이라 하는 것은 중국농서(中國農書)에는 경(京)으로 기록된바 최근에도 지방 농가에서 발견되며, 아마도 널판자를 바닥에 간 고상식구조였을 것이다.

- 3) 신영훈, 한옥과 그 역사, 동이문화사, 1975, p.60
- 4)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47
- 5) 장기인, 木造, 보성문화사, 1991 p.341
- 6) 손승광의 "조선조 한옥에 나타난 인간적 척도연구"에 의하면 안방의 천정고는 성인 남자의 손을 뺀 물리적인 크기를 기준으로하여 동작의 최대범위보다 10cm높은 219cm로 보았으며, 표준편차는 15cm로 잡았다.
- 7) 김제 정구례가옥의 사랑채
- 8)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와 역사, 기문당, 1991
- 9) 김광언, 한국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 10) 김정기, 韓國木造建築, 일지사, 1980
- 11) 김해시 건축사회, 伽倻建築, 1995
- 12) 손승광외, 朝鮮朝 韓屋에 나타난 人間의 尺度 연구, 1995年度 大韓建築學會學術 發表論文集, 1985
- 13) 신영훈, 韓屋과 그 歷史, 동이문화사, 1975
- 14) 장기인, 木造, 보성문화사, 1991
- 15) 주남철, 韓國住宅建築, 일지사, 1980
-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1991
- 17) 홍승재, 朝鮮後期 富農住居의 建築特性에 관한 연구, 圓大論文集 第31輯, 1996